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김소영

■ 학습목표

- 물질 만능주의의 문제점을 사회 교리 가르침에 비추어 바라볼 수 있다.
- 물질과 소비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할 수 있다.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채색 도구, 상품권 크기로 자른 종이, 편지 봉투, 작은 우유팩, 칼, 색지, 풀

■ 교리 시간

- 50분

시작 기도

구세주 빨리 오사(가톨릭 성가 91번)

도입(7분)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당에 다니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 성탄 미사, 캐럴, 나뭇잎 등을 떠올리겠지만, 누군가는 선물, 세일, 데이트, 콘서트, 파티, 네온사인, 여행 등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 밑바닥에는 분명히 성탄절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상업화에 몰들어 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나눌 줄 모르고 즐기기만 하고, 소비와 향락에 빠져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씩씩해지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최근 들어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 성탄 대축일을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사치와 향락이 넘치는 축제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풍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번 성탄절을 통해 이 세상에 물질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바람직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개(40분)

1.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물질주의의 예를 찾고,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배금주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이 인간보다, 심지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여러분이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게 됩니다. 돈이 앞서다 보면, 점점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마치 강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자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요.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영향을 받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국민들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더욱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만들려 하다 보니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오염됩니다. 이처럼 사회가 상업적으로 몰들면 너무 자극적인 것만을 선호하게 되고 향락적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온갖 폭력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성세대들의 물질을 숭배하는 가치관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기심과 욕심, 물질 만능주의가 퍼져 가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자체가, 부자가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화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겠지요. 교회는 개인 각자가 재화를 많이 모은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로운 기준으로 세상의 재화를 잘 나누어 가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욕심을 거두고, 가진 재화를 잘 나누었을 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민족들은 부유한 민족들로부터 닥쳐오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아무리 경계한다 해도 넘쳐난 경계가 될 수 없다. 부유한 민족들은 그들의 기술 문명과 문화 발전 속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를 보여 주며 주로 물질적 번영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그들의 활동 방법을 모델 삼아 제시한다. 물론 물질적 번영 자체가 정신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란 말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 번영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사물의 노예 상태에서 훨씬 자유롭게 해방되어 더욱 쉽게 하나님을 섬기고 관상할 수 있도록 향상된다.” 그렇지만 “현대 문명은, 물론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지상 사물에만 열중하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로의 접근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발전 도상에 있는 민족들은 자기들에게 제시된 사물 가운데서 적당히 선택할 줄을 알아야 하겠다. 인간의 이상을 저하시키는 거짓 가치들을 비판하여 배척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가치들은 받아들여 이미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들과 함께 제 나름의 능력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교황 바오로 6세 사회회칙 「민족들의 발전」 41항

선생님들께 ☞ 돈이나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주십시오. 가정, 학교, 교회, 사회, 전 세계의 모습에서 돈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찾아볼 수 있게 지도하시면 됩니다. 돈 문제로 인한 자살, 전쟁, 폭력, 식품 오염, 기업 횡포, 성 상품화, 연예인 노예 계약 등,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연결되어 악순환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2.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바람직한 걸까요?

경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회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그런 세상의 흐름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올바른 경제생활을 해 나가 오늘날 소

비문화 흐름을 바꾸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나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뒤처지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는 마음, 명품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 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자극적인 것을 바라는 마음들을 조금씩 다스려 봅시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을 쓰지만 그럴수록 공허해지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물질에 더 집착할수록 다시 더 큰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신적인 것을 채우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땅 위에 두시어 그것을 가꾸게 하였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사용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직업 안에서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배웠다. 생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다. 실은 그가 항상 하나님의 법과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의 재산을 신앙과 바른 이성에서 따라 사용한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의 부를 증대시키는 사람은 증대된 공동 재물에서 그의 적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 원칙을 모든 이들이 도처에서 항상 준수한다면, 단지 생산과 재화의 획득뿐만 아니라 너무나 종종 통제되지 않는 재물의 사용까지도 짧은 기간 내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현대의 수치며 대죄인 야비한 이기심은 그리스도교적 절제의 어질고도 힘 있는 법칙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저지될 것이고, 그 법칙은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도록 명하며, 현세적인 재물도 필요하다면 덧붙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굳은 약속을 믿으라고 명령한다.

-교황 비오 11세 사회회칙 「사십 주년」 56항

공권력의 필요한 개입은 논하지 않고도, 선택할 자기 능력의 현명한 사용을 위한 구매인들의 교육과 예민한 책임 의식을 위한 생산자들 자신의, 특히 매스컴의 기술자에 종사하는 이들의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거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요청된다. (중략) 더욱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존재보다는 소유로 향할 때, 더욱 인간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락을 목적으로 살기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할 때, 이것을 나은 것이라고 여기는 생활양식이 잘못이다. 따라서 진리와 미와 선의 추구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가 소비, 절약 그리고 투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생활양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가난한 이들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의 의무에만, 즉 “남는 것”으로 도와줄 의무에 호소하지 않고 어떤 때는 “필요한 것”으로 도와야 할 의무에 호소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백주년」 36항

작업1)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성탄 선물 준비하기

- ① 오늘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실지 생각합니다.
- ② 각자 ①의 아기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선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합니다.(물건, 재능, 돈, 시간, 노력 등)
- ③ 상품권 크기로 오려 둔 종이에 ②에서 생각한 선물을 적고 예쁘게 꾸민 후 편지 봉투에 넣습니다.(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성탄절까지로 합니다.)
- ④ 대림 기간 동안 상품권에 적힌 선물을 준비해, 성탄절에 봉헌합니다.

작업2) 성탄 시상식(Christmas Award)

- ① 경제생활에 있어서 올 한 해 자신이 잘한 부문은 어떤 부문인지 말해 봅니다.(충동구매 안 한 부문, 절약 부문, 현금 부문, 저축 부문, 후원 부문, 유행 따르지 않은 부문, 과소비 하지 않은 부문, 재활용 부문 등)
- ② 우유팩을 색지로 예쁘게 포장한 뒤, 구멍을 뚫어 저금통으로 만듭니다.
- ③ 포장한 우유팩 저금통에 색지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을 오려 붙입니다. ①에서 말한 부문을 비둘기 모양 안에 적습니다.
- ④ 작은 시상식을 엮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저금통을 트로피처럼 수여합니다.
- ⑤ 대림 기간부터 성탄 축제까지 저금통을 채워 넣기로 약속합니다. 돈을 넣어도 되고, 바람직한 경제 생활 내용을 쪽지에 적어 넣어도 됩니다.(예-참고서 물려주기, 도토리 기부, 결식아동 후원 등)

생명의 말씀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 4).
 -오늘날의 환경 파괴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물질주의적 세태'에 있다. 물질주의는 오늘날 지구구를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1티모 6, 17-18).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루카 12, 15).

정리(3분)

빵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느님은 잊고 오로지 빵만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낼 때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욕심과 이기심을 경계하라고 하셨나 봅니다. 다가올 성탄절과 연말연시로 인해 분위기가 들떠 있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빵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가 마음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또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분은 설문조사와는 달리 아마 마음의 선물을 제일 좋아하실 것입니다. 대림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께서 방긋 웃으실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 보기 바랍니다.

생활 적용

- 물질주의의 예를 좀 더 알아보기
- 절제력을 키우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개발하기
- 정신적인 풍요를 얻기 위한 노력해 보기(독서, 기도, 피정, 봉사 등)
-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거나 바자회 열기

미침 기도

구원의 메시아(가톨릭 성가 97번)

참고 자료

- 간주린 사회교리 e-book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문헌 마당 www.cbck.or.kr)
- 교황 바오로 6세 사회회칙 「민족들의 발전」
- 교황 비오 11세 사회회칙 「사십 주년」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백주년」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회회칙 「사회적 관심」
- 교황 요한 23세 사회회칙 「어머니요 스승」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현장'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네이버 백과사전, 용어 사전

김소영_세실리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개포동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 중고등부 사목부의 교육부 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프로듀서와 매체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